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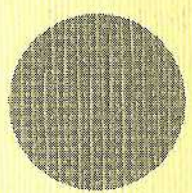
# 천주교 민영교도소 연구 발표회

- 소년교도소의 방향과 모델 -



일시 : 2003년 2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대학교 진리관 대강의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HomePage : <http://caritasseoul.or.kr/kyojung>  
E-Mail : [kyodo@catholic.or.kr](mailto:kyodo@catholic.or.kr)  
대표전화 : 02)776-7208  
팩 스 : 02)319-4428

인권정보자료실  
CPal.50

인권정보자료실  
CPal.50

# 천주교 민영교도소 연구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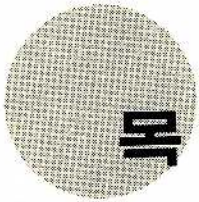
- 소년교도소의 방향과 모델 -



.....  
일시 : 2003년 2월 20일(목)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대학교 진리관 대강의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업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목 차

3 머리글

4 일정

5 기초강연

청소년 보호와 그리스도 정신  
양승국 신부 (살레시오회)

17 연구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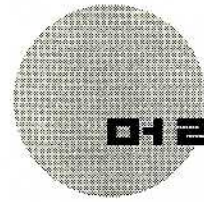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연황과 범직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이명숙 교수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83

소년교정의 국제준칙과 외국의 연황  
박병식 교수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13

천주교 소년교도소의 당위성과 모델  
이영우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머리글

### 주님! 당신이시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가 4,18-19)

한국교정사와 교정사목에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평가되는 민영교도소 관련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민영교도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민영교도소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정사목위원회에 ‘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본격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청소년이 어린 시기에 범죄의 길에 접어들면 이후 장기간 어두운 삶의 질곡을 헤쳐가야 합니다. 또한 사회도 청소년 범죄자로 인해 수많은 희생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년교도소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형태의 큰 틀 안에서 “차별과 징벌”이 아닌 “치료와 사회복귀”를 우선으로하는 50여 명 수준의 소규모 교도소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소년교도소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살아야 할 나이에 처음 세상을 접하면서 버림과 학대와 소외로 인해 자신의 꿈을 일찍 접을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회의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병자, 나병환자, 병어리, 죽은 사람처럼 삶을 강요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루가 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찾아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마음에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유하시며 해방시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민영교도소 연구발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발걸음이 그늘 속에 사는 형제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2003년 2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

이영우 신부

## 일정

14:00 - 14:20 인사말 (김수환 주기경)

14:20 - 14:40 기조강연  
청소년 보호와 그리스도 정신 (양승국 신부 / 살레시오회)

14:40 - 15:40 연구보고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이명숙 교수 /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소년교정의 국제준칙과 외국의 현황  
(박병식 교수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주교 소년교도소의 당위성과 모델  
(이영우 신부 / 전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위원장)

15:40 - 16:00 휴식

16:00 - 17:2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이상진 목사 / 아가페 재단 행정실장  
여정현 신부 / 전주교 수원교구 교정사목위원회의 전담  
김인태 교장 / 성지중고등학교  
유병철 사무관 / 법무부 교정국

사회 : 정봉영

좌장 : 김영태 변호사 / 전주교 인권위원회의 이사

## 기조강연

### 청소년 보호와 그리스도 정신

양승국 신부  
[살레시오회]

#### 1. 기조 강연을 시작하면서

#### 2. 청소년 보호의 열쇠 - 돈보스코 예방교육

- 1) 청소년 보호의 핵심 - 착한 목자로서의 교육자
- 2) 청소년 보호의 기반 - 가족정신
- 3) 청소년 보호의 결론 - 친절한 사랑
- 4) 청소년 보호의 배경 - 돈보스코의 낙관주의

#### 3. 강연을 마치면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장 42절)

## 1. 기조 강연을 시작하면서

교정사목(재소자나 출소자들을 위한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나 교화 활동에 전념하는 봉사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몇 년 전 한평생 오로지 교정사목에만 헌신하다가 선종하신 한 골수 봉사자 할머니가 기억난다. 이분의 삶은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기도, 재소자들 챙기기 빼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재소자들을 언제나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친자식처럼 대하던 모습, 미사 때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재소자들 사이에 앉아 있던 모습, 졸고 있거나 딴전 피우는 재소자들이 있으면 사정없이 혼내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소자들 역시 그런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대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일찍이 홀몸이 된 할머니는 교정사목 봉사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 한평생 교정사목에 투신하게 된다. 할머니의 투신은 말마디 그대로 몸을 내던진 투신(投身)이었다.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출소한 사람들도까지 챙기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전 재산을 다 털어 넣게 되었다. 그리고 임종하기 전 투병 생활을 위한 치료비조차 없이 단칸 셋방에서 고생하였다.

할머니의 삶은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말을 한다. "저 사람들, 잘못했는데, 당연히 고생해야지요. 그런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교정사목은 다른 사목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목임이 분명하다.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의 그 높은 담장이나 철창을 내 집 드나들 듯이 왕래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런 일이다. 또한 그 안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안쓰럽기 짝이 없다. 이제 출소해서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새 또 들어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화가 치미는 일이다. 사람들의 인식도 별로 좋지 않다. 시간 투자, 돈 투자도 만만치 않고,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사목에 한번 투신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으로부터 쉽게 발길을 끊지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이유는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 방문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소자들의 삶 안에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얼굴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나그네를 따듯이 맞아들이고, 거지들에게 옷과 음식을 주고, 또한 간힌 사람들을 방문하라고 당부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심을 확신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극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힘에 겨운 십자가를 겨우 겨우 지고 가는 사람들, 특별히 재소자들이 바로 우리가 극진히 섬겨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부디 오늘 이 연구 발표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청소년 재소자들의 고통 안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더불어서 민영소년 교도소가 하루 빨리 가시화 되어, 우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소년 재소자들을 예수님 섬기듯 극진히 섬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원한다.

## 2. 청소년 보호의 열쇠 - 돈보스코 예방교육

### 1) 청소년 보호의 핵심 - 착한 목자로서의 교육자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주 사목 대상으로 삼고 봉헌생활을 해나가는 살레시오 회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돈보스코 성인을 창립자요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돈보스코는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교육자였다. ‘어떻게 하면 방황하고 흔들리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한 평생 노심초사했던 성인이 돈보스코였다.

착한 목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해 보는 낭만적인 삶이 결코 아니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풀밭 위에서 여유 있게 책을 본다든지 피리를 부는 그런 유유자적하는 삶 또한 아니다. 그보다는 늘 양떼의 머릿수를 세야 하고, 뒤쳐지는 양들을 끊임없이 불고 가야하며, 때로 황량한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거친 생활이다. 때

로 퍼붓는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아야 하며, 수시로 다가오는 위험과 돌변의 사태를 대비해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착한 목자로서의 삶이다.

가끔씩 잠깐 한 눈 파는 사이에 도둑들이 들이 닥쳐 양들을 훔쳐간다. 어떤 양들은 사고뭉치들이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딴 곳으로 샌다. 또 어떤 양들은 뒤에 쳐져서 제대로 따라 오지도 못한다. 또 어떤 풀밭에 가면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풀들이 있기도 해서 늘 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잠시도 즐기거나 한눈팔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착한 목자는 하루 온종일을 오직 양떼의 안녕만을 위해, 영혼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마침내 모든 양떼들을 양 우리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착한 목자로서의 삶으로부터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이 탄생한다.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은 논리화되거나 이론화된 어떤 학설이기보다는 가난한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해 한평생 노력했던 돈보스코가 교육자들에게 남겨준 삶 그 자체였다. 교육자로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접근해야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돈보스코가 청소년들을 위해 기울였던 그 모든 구체적인 매일의 노력들이 바로 돈보스코 예방교육의 근간이다.

### 2) 청소년 보호의 기반 - 가족정신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요소들 안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정신이다. 가족정신이란 한마디로 교육자들에게 맡겨진 그 철부지 아이들을 ‘내 아들이며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 교육자들을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로 느끼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육자들과 청소년들 사이의 관계를 상점 주인과 고객 사이의 관계로, 또는 상하관계로, 또는 주종 관계로, 또는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돈보스코가 추구했던 가족정신의 요지이다.

1800년대 후반 돈보스코가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시작한 기숙사에는 당시 8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숙식하고 있었다. 후에 돈보스코가 귀천 하고 나서 성인

품에 올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증언에 임했던 사람들-당시 토리노의 돈보스코 기숙사에서 직접 돈보스코와 얼굴 맞대고 살았던 기숙생들-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

“돈보스코와 함께 살았던 기숙사 생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 모두의 아버지였습니다. 돈보스코는 저희들의 숫자가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름을 낱낱이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돈보스코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저희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저희들 놀이에 함께 해주셨는가 하면 저희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모두의 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돈보스코의 기숙사는 한마디로 가정이었다. 돈보스코는 언제나 그곳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을 친아들 대하듯이 대했고 아이들은 돈보스코를 아버지로 여겼다. 진정한 아버지였던 돈보스코는 자신의 수많은 아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한평생 노심초사했던 청소년들의 아버지였다.

3년 전의 일이다. 그때 당시 주요 일간지 사회면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한 교사의 죽음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산에 있는 광명고등학교 1학년 2반 담임이었던 김지환 선생님이다.

평소에 산을 좋아하던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뒤,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교 뒷산으로 암벽 등반을 하러 갔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실족으로 인해 16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동료교사들은 급히 선생님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끝내 운명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병원 영안실에 선생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선생님의 시신이 영안실에 안치되고 나서부터였다. 선생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학생들과 졸업생들, 동료교사들이 빈소로 몰려와 밤을 새워가며 애도를 표현했다.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병원이 개원한 이래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온 적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애도하느냐?”는 물음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했다. “그분은 말로서 뿐만 아니라 몸으로 참교육을 실천한 우리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이 그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주었던 참 교육자의 모습은 이루 열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전설처럼 남아 있는 선생님의 교육 일화는 이런 것들이다.

선생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교육철학 중에 하나가 ‘교사는 제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학교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은 7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퇴학을 당했었는데, 선생님은 자비를 털어 자취방을 마련하였고, 그들에게 검정고시를 준비시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대학에도 진학시켰다. 단골 지각생들의 버릇을 매나 기함으로써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출근하시는 길에 학생들의 집에 들러 함께 출근함으로써 지각하는 버릇을 고쳤다고 한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나 형님처럼, 때로 친구처럼 말이다.

선생님은 문제 학생들을 언제나 특별 관리하였는데,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특별 관리가 아니라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하면서 나누었던 애정 어린 대화를 통한 특별관리였다. 마치 아버지처럼 말이다.

‘고객은 왕이다’,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는 말을 요즘 많이 쓴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자들의 고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의 청소년들, 우리들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우리가 극진히 섬겨야 할 왕인 것이다. 또한 한번 아들이면 그 아들이 사고뭉치건 장애자건 상관없이 영원한 아들이듯이 ‘한번 제자는 그 제자가 꼴통이든 말썽꾸러기이든 영원한 제자’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돈보스코 예방 교육 안에서 가족정신이다.

비록 오늘날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또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교육자가 ‘저 아이들은 바로 내 아들, 내 딸들이다’ 생각하고 진정으로 헌신할 때, 아이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그런 교육자들의 노력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참된 스승은 아이들을 마치 좋은 부모가 그러하듯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수업을 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 가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다. 참된 스승은 좋은 부모가 하루 온종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듯이 교실에서만 스승이 아니라 교실 밖 어디에서나, 매일 매순간 스승이다. 참된 스승은 좋은 부모가 그러하듯이 아이의 방황 앞에 내일처럼 고민하고 아이와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부모와도 같은 사람이다.

결코 길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자들이 만나는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아들딸들이다.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 이렇게 힘든 날, 이 세상에 그나마 선생님께서 계셔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선생님, 정말 계셔 줘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언제까지나 제 담임으로 계셔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좋겠다. 교육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매일 만나는 그 청소년들이 바로 자신의 아들딸들이고 자신들 삶의 의미이고 존재이유기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다. “아이들아 정말 고맙다. 너희들은 내 삶의 의미란다. 나는 너희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딸로 생각한단다.”

돈보스코 예방교육의 가족정신의 핵심은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을 내 자식으로 여기는 것, 내 교실을 내 가정으로 여기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갔다 가도 빨리 다시 교실로 달려오고 싶도록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정신이다.

### 3) 청소년 보호의 결론 - 친절한 사랑

돈보스코의 교육학 안에 참으로 중요하며 효과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절한 사랑’이다.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친절한 사랑이란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다. 친절한 사랑은 살레시오 정신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친절한 사랑이란 그저 잘 대해준다든지 공감해준다든지 상냥하게 대하는 그 이상의 태도이다. 친절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부족함을 끊임없이 인내하는 덕 중의 덕이다. 친절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한 알 썩는 밀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의 외적 표현이다. 친절한 사랑은 인격 전체의 투신을 요구하는 영웅적인 행위이다. 친절한 사랑은 이웃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고 이웃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복음적 삶의 방식이다.

돈보스코의 일생을 다룬 전기를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대목이 있다. 사제로 서품된 돈보스코가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위한 하느님 사업에 목숨 바쳐 뛰어든 시기였다. 잠시도 쉬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던 돈보스코가 덜컥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돈보스코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던 의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자신 없어 했다. 병세는 급격히 진전되어 돈보스코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헤매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이도 아직 젊은데, 안됐다”며 혀를 찼다. 이 소식이 오라토리오 아이들에게 전해지자 청소년들은 울며불며 하느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기도 당번을 짜서 24시간 돈보스코의 건강 회복을 비는 릴레이 기도를 바쳤다. 어떤 아이들은 “하느님! 돈보스코만 살려주신다면 한 평생 빵과 물만 먹고 지내겠습니다! 제발 돈보스코를 살려주세요”하고 마음속으로 하느님과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런 아이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긴 돈보스코는 아주 느렸지만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다.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돈보스코에게 의사는 더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그런 의사의 말이 돈보스코에게 먹혀들 리 만무했다. 마침내 돈보스코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아이들 틈으로 돌아온 날이었다. 돈보스코임을 확인한 아이들을 멀리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다. 수많은 아이들이 일제히 돈보스코를 에워쌌다. 모두들 서로 부둥켜안으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돈보스코 만세!”,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돈보스코는 모든 살레시오 회원들이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다. “아이들아!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나는 오로지 너희들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며,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단다.”

아이들은 돈보스코 안에서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을 발견했다. 돈보스코를 통해 아이들은 늘 용서하시고 늘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발견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보스코를 대할 때 마치 하느님을 대하듯 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보스코를 한번이라도 더 만나보길, 한번이라도 더 그분 가까이 있기 소원이었다.

그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보스코였기에 아이들 역시 극진히 돈보스코를 사랑했고, 돈보스코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오래오래 자기들 가까이 머물러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친절한 사랑의 결과는 아이들 마음 안에 또 다른 친절한 사랑이란 결실을 맺게 했다.



#### 4) 청소년 보호의 배경 - 돈보스코의 낙관주의

돈보스코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 왔던 사제의 꿈을 실현하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돈보스코가 사제가 되는 것을 죽어도 반대했던 이복 형 안토니오와의 갈등, 신학교에 보낼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해 돈보스코가 겪어야만 했던 슬한 고생들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장애물들이 돈보스코의 성소 여정을 가로막곤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돈보스코와 어머니 말가리타는 그들 특유의 일상화된 낙관주의를 최대한 발휘하여 그 난관들을 곳곳이 잘 극복해 나갔다.

돈보스코의 낙관주의는 자신이 구상했던 오라토리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리 잡지 못하고 떠돌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오해받을 때 유감없이 발휘되곤 했다. 오라토리오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했다. 수 백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돈보스코를 따라 떠돌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던 주민들은 시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진상 조사가 나온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증상모략으로 인해 폐쇄조치할 것을 여러 번 통보 받는다.

아이들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는데 비해 돌아가는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했다. 돈보스코는 당시의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멀리했다. 나를 도와주던 이들마저도 나를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 가운데 홀로 내버려두었다.”

또 다른 순간 돈보스코는 이런 고백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뛰놀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혼자였고 기진맥진해 있었으며 건강도 악화되었다. 나는 혼자 거닐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부르짖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소서!’”. 이처럼 돈보스코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안정된 오라토리오 생활, 주변 사람들의 비협조와 몰이해 앞에 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는 자신의 성소 여정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비록 지금은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분의 꿈이 자신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돈보스코의 낙관주의는 반드시 상황이 안정될 때, 또는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 나갈 때가 아니라, 견잡을 수 없이 계속되는 시련 앞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돈보스코가 사제로써 사목하였고 그리고 살레시오회 창립자로써 살았던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당시 이태리 교회의 상황은 산업화,

세속화의 물결, 독립운동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사제 성소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수도회들이 지니고 있던 재산들은 정부로부터 강탈당했으며, 반교황주의, 반성직자 주의, 반교회주의가 만연되어가면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전반적인 신앙은 약화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보스코는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그것은 바로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당’ 건립이었습니다. 돈보스코는 이 대성당을 건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어렵고 슬픈 시기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돈보스코가 대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반교회적인 사상에 몰들어 가고 있는 시기에 그렇게 큰 성당을 짓겠다니 돈보스코가 아마도 제 정신이 아닌가봐!” 하고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스코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주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의 선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혀 상상 못할 모습으로 우리 사업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돈보스코는 역사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의 힘과 열정의 흔적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돈보스코는 자주 자신이 보아 왔던 악인들의 회개와 문제성 많았던 젊은이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였다. 돈보스코는 악과 시련, 고통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였지만 결코 무릎을 꿇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하느님의 역사하심 안에 또 인간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선이 결국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돈보스코는 아무리 문제성을 많이 안고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느님의 선한 의지로부터 창조된 피조물’로 바라보았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부활로 조명된, 당신 피로써 구원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돈보스코에게 있어서 청소년은 ‘경작되어야 할 좋은 밭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 맺도록 일해야 하는 밭이며,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악과 싸워 이겨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소중한 장소’로 보았다.

이렇게 돈보스코는 청소년들 가운데 깃든 하느님의 선한 의지, 또 청소년들 마음 안에 간직된 가능성을 알았기에 그들이 지닌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었던 낙관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돈보스코의 낙관주의는 무엇보다도 한 아이의 역사와 성장 과정 안에서 벌어졌던

나름대로의 고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려는 애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 한 아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또 돈보스코의 낙관주의는 무엇보다도 한 아이 안에 닿아있는 하느님의 흔적과 손길을 본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오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 상황이 낙담할 만큼 혼란스러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한 아이의 새로운 출발과 재도약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또한 돈보스코의 낙관주의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정확한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드러나는 현상 앞에 무턱대고 “괜찮을거야”, “다 그렇지” 하는 식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그보다 낙관주의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목표를 위한 계획을 짜고, 또 그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3. 강연을 마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오 9,13)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정사목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결국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은 결국 재소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대상이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재소자들, 특히 회개하는 이웃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도든 교회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다시 한번 공동체에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회개와 쇄신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이며 사랑임을 확신한다.

## 연구보고

###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죠평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이명숙 교수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 I. 우리나라의 소년교정보호 현황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 II. 비행청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1. 이론적 배경
2. 조사설계
3. 연구문제
4. 분석 결과

#### III. 소년교정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1. 서론
2. 행형법에 근거한 소년교정제도
3. 소년법에 근거한 소년보호제도
4. 결론 및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I. 우리나라의 소년교정보호 현황

### 1. 소년원

#### 1) 개요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송치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시설이다.

소년원의 교과교육은 1942년에 조선총독부 교정원령에 의해 경성소년원(서울소년원의 전신)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1988년에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소년원법은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필요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학력의 취득, 학교진학, 전학, 편입학이 불가능하였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사도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여 학교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의 박탈, 처우상의 불리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우수교사 확보가 곤란했었다.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현재는 소년원 근무교사의 신분보장, 학적관리, 학교 전·편입학, 졸업장 수여 등 학력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법무연수원, 2001:377; 이훈규·김성언, 1996:72-73).

#### 2) 기능별 유형

전국에 소재해 있는 12개 소년원은 각각 그 기능을 특화하고 있다. 기능의 특화방식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소년원생의 수용기간에 따른 차별화로 소년원을 단기소년원과 일반소년원으로 구분한다(표1 참조).

6개월로 수용기간이 제한되는 단기소년원처우는 시설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사회내 처우의 기법들과 사회의 자원들을 시설내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교정프로그램이다.

1988년부터 개정소년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호소년에 대한 장기송치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단기소년원 처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로서, 수년전까

지만 해도 춘천소년원만이 단기송치자를 전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12개 소년원 중 단기처우를 실시하는 기관이 6개소로 증가했다.

<표 1>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구분	기관명	학교명	
특성화 학교	정보통신 학교	서울소년원(일반)	고봉정보통신 중고등학교
		대구소년원(단기)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단기)	송천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단기)	신촌정보통신학교
		충주소년원(단기)	계명정보통신학교
	정보산업 학교	부산소년원(일반)	오륜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일반)	고룡정보산업학교
		대덕소년원(일반)	대덕정보산업학교
		대전소년원(일반)	원촌정보산업학교
		안양소년원(단기, 일반)	정심정보산업학교
일반 학교	제주소년원(단기, 일반)	한길정보산업학교	
	청주소년원(일반)	미평 중고등학교	

자료: 법무연수원(2001:394)

### 3) 운영현황

1996.11 현재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은 모두 1,03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직렬별로 보면, 보도직이 69.5%로 가장 많다. 보도직 중에서 일반보도직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의 40.4%이고 교사의 비율은 29.1%이다. 보도직원 중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보도직의 비율보다 낮은 것은 소년원 운영이 교육보다는 감호 위주로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1995년 통계에 따르면, 보도직 교사 301명 중 41.2%는 보도직 교사로 특별채용한 경우였고, 17.3%는 교사공채에 의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41.5%는 재직중에 교사자격을 취득하였다(법무부, 1994:165, 이훈규·김성언, 1996:82에서 재인용).

별정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직업훈련교사는 모두 35명으로 전체 직원의 3.4%에 해당하고 있다. 즉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보도직 교사 및 직업훈련 교사)은 전체 직원의 32.5%에 머물고 있다.

<표2> 소년원 직원현황 (전국 및 서울소년원)

구분	계	보도직	직업훈련교사	의무직	기능직	비교(교사)
전국*	1034	719	35	37	243	301
서울소년원	79	52	6	2	19	33

\*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직원  
자료: 서울소년원(1995), 이훈규·김성언(1996)에서 재인용

소년원에 배당되는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은 소년원 운영(인건비)에 소요되고 있다. 교육훈련이 주가 되어야 할 소년원의 예산이 지나치게 인건비 위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1995년에 서울소년원의 예산은 20억6천79만원이었는데, 이를 동기간에 수용된 소년원생 인원수(309명)으로 나누면 소년원생 1명을 수용하는데 총 6백34만5천원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 4) 소년원생의 일반적 특징

#### (1) 소년원생 수용실태

1981년에는 신수용인원이 연간 2,191명이던 것이 그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2,500명에 이르렀고, 그후에는 점차 감소하다가 1988년에 1,437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후 199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증가·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00년 현재에는 12개 시설에 1일 평균 수용인원이 2,197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남자 청소년이 93.8%를 차지하고 있다.

#### (2) 비행별 실태

2000년 현재 소년원생들의 비행유형을 보면, 절도가 5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상해/폭행(18.6%), 강도(9.8%), 약물남용(6.1%), 음란(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원생들에 대한 처우형태가 다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학력별 실태

소년원생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학력 이하의 구성비는 1991년에 14.2%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1996년에는 9.1%였다가 1997년에 12.0%로 일시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4.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중학교 학력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1991년의 54%에서 1996년에 64.4%, 2000년에 61.3%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학력자는 큰 변동이 없다.

<표3> 보호소년의 학력별 인원(2000년) 단위: 명(%)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931 (100%)	2 (0.1)	119 (4.1)	1797 (61.3)	1007 (34.3)	6 (0.2)

자료 : 법무연수원(2001:385)

#### (4) 범죄경력별 실태

입원횟수를 보면 대부분이 소년원에 처음 수용되는 경우지만, 1995년 현재 수용된 소년중 19.4%는 과거에도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재수용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6개월~1년 6개월 기간에 재수용되는 비율이 52.9%로 나타났는데, 이기간은 가퇴원생들에 대한 보호관찰이 끝나는 기간과 중첩되는 것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보호관찰후 사후지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이훈규·김성언, 1996).

#### 5) 소년원의 특성화교육

단기처우든, 중기·장기처우든 모두 입원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 등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단기처우과정에서는 장기처우에서 강조되는 교과교육과 직업훈련이 수용기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운영되지 못한다.

소년원생의 편입학 인원 수는 원생이 퇴원 후 학교에 재복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93년에 소년원 퇴원후 일반학교에 편입학한 원생은 10.5%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복학포기율은 86.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수용기간중에

원생의 검정고시합격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후에는 복학포기율이 이처럼 높아지는 것은, 수용기간 중에는 강제성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다가 퇴원과 동시에 이러한 강제성이 사라지고 사회내 장애 때문에 학업의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는 원생들의 입원 전 학교중퇴율과 비견된다(이훈규·김성언, 1996:86). 1993년에 전국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원생들 중 퇴원후에 편입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원생이 55.1%로 나타났다는 연구보고가 있다(이병기·김성언, 1995:63).

최근에 소년원의 학과교육은 정보화 특성화 교육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에 시행된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법무부 훈령 제427호)에 의거, 법무부 산하 특성화 중고교(일반소년원)에서는 교과활동을 전문교과와 보통교과(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가정)로 구분하고, 전문교과의 시간배당을 중학교는 연간 809시간(총 교과활동시간의 75.7%), 고교에서는 연간 857시간(76.8%)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교과는 실용영어와 컴퓨터로 한정하고, 특성화중학교에서의 영어 대 컴퓨터의 시간비율은 3:7로, 고교에서는 2:8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연간 566시간 실시하며, 고교에서는 연간 686시간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성화고교에서는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 정보전문화 교육을 도모한다. 법무부 산하 소년원 12개 모두가 “○○정보통신학교” 또는 “○○정보산업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정보통신중고등학교” 또는 “정보통신학교” 명칭이 붙은 소년원은 종전의 교과교육소년원이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변경된 것이고, “정보산업학교” 명칭이 붙은 소년원은 직업전문 소년원을 의미한다(표1 참조; 법무부, 2000.8).

이와 같이 법무부는 정보화 교육을 보호소년의 특성화 방향으로 정하고 학교 교과과정도 대폭 개편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설비, 기자재 및 전문 지도인력도 보강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예컨대, '99.9부터 전국소년원에 멀티미디어 어학실과 펜티엄급 컴퓨터 1,147대를 투입하여 종합정보처리교육센터를 개설하여 1인 1PC, 1일 24시간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도할 전문강사도 200여명 가까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특성화 교육과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신수요직종(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 건축제도, PC수리, 피부미용 등)을 신설하여 교육함으로써, 보호소년 중에는 수용기간이 끝나 퇴원이 허가되었는데도 국가기술자격 시험준비를 위해 자진하

여 퇴원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이 보고된다(법무부, 2000.11).

## 6)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년원생에 대한 직업훈련은 형사정책적, 경제사회적, 교정시설의 관리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문영호 외, 1993:37).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직업훈련은 소년원생에게 규칙적인 일과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정신을 고취하고 의존심과 악습을 교정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적성, 취미, 희망 등에 적합한 기능을 연마케 함으로써 퇴원후 안정된 생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재범을 방지함에 목적을 둔다.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효노동력을 유효인력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소년원시설 관리측면에서는, 원생을 직업훈련이라는 일정한 테두리 속에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규율을 확립하려는 목적도 갖는다(이훈규·김성언, 1996:89).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본격화된 것은 1973년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안양 소년원에 공공직업훈련소를 병설할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의 각 소년원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소년원을 직업훈련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해 왔으나 2000년 9월에 소년원이 특성화학교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훈련직종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4개 사양직종을 폐지함과 동시에 컴퓨터 산업디자인 등 4개 유망직종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 부터는 6개 정보산업학교에서 15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다. 1999-2000년에는 컴퓨터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1인 1자격증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기능자격증 취득율이 130%를 넘고 있다(법무연수원, 2001:397).

그러나, 자격취득률이 높다고 해서 퇴원후 사회재적응을 보장할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기술의 소유여부가 취업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년원생의 퇴원후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은 직업훈련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재범률 감소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서, 기술자격 취득 출소자의 재입소율(9.1%)이 일반형사사건 구속자의 재범률(42.2%)에 비해 낮다는 보고가 있었다(교정보호신문, 1996. 1. 29).

## 7) 생활지도 프로그램

학과교육이나 직업훈련과는 달리 생활지도 활동은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병기·김성언(1995)은 소년원의 처우프로그램에 대한 원생과 직원의 응답을 비교한 연구에서, 원생들은 야영훈련, 외부공장취업, 담임교사 상담지도, 종교지도 등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직원들은 철저한 생활지도, 규율·상벌의 엄격한 실시 등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원생이나 직원 모두가 상담지도가 효과가 높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고, 반대로 교과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일치했다.

원생들이 효과가 높다고 지적한 생활지도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야영훈련

1986년부터 야영훈련이 실시되기 시작해서 매년 10-11회 정도 열리며 각각 5일간 진행된다. 퇴원예정자나 교정성적이 우수한 원생이 훈련대상자로 선정된다. 훈련교관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직원(36명)과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 지도자(10명)가 맡으며, 야영, 산악훈련, 야외취사 등을 통해 보이스카우트 기능훈련, 정신교육, 체력단련, 자연관찰, 심리치료 등을 지도한다.

### (2) 상담지도

상담지도는 개별지도의 중요한 항목이다. 상담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심리지도의 한 방법으로서 원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내 생활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 감정,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치우활동이다.

### (3) 종교지도

종교지도에는 종교집회, 종교의식, 사회종교행사에의 참여, 성경 및 참선학교개설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종교지도는 1인 1신앙 갖기운동을 전개하여 가능한 한 원생 전원이 신앙을 갖도록 장려하고 종교지도는 주로 신자직원을 담임으로 하여 실시한다. 외부 성직자들을 종교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종교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소년원의 경우는 주말을 이용하여 정규 종교집회를 개최하고, 하계·동계 방학

을 이용하여 연 1회 종교별 입교의식 및 종교수련회를 실시하고 있다.

종교가 심성순화와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은 재범률 감소 면에서 나타난다. 법무부의 재범률 조사결과에서(법무부, 1983:19-20), 교도소 출소자 중 김정고시합격자의 재범률은 11.0%이고 기능보유자의 재범률은 9.6%인데 비해, 신앙 결신자의 재범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6.7%로 보고되었다(신왕식, 1988:390).

## 8) 상담 및 심리치료

교정상담 또는 심리치료는 개인 또는 집단의 부적응 문제의 해소를 돕는 데 사용되는 절차나 기법을 지칭한다. 상담의 기본은 특정행위가 그 행위자인 개인에 의해 '부적응적'이라고 인식되어서 행동의 변화를 개인 스스로가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Bartol, 1995:401). 교정상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왜곡된 인간관과 사회관, 경제관 등을 치유하여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있다(김길자, 1989:61; 이훈규·김성언, 1996:121에서 재인용). 상담지도에는 원생 각자의 생활과 교육상의 제 문제에 대하여 원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계직원에게 조언 지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별상담은 소년원의 각 반 담임이 반 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입원시에 문제소지를 안고 있는 원생이나 수용중에 문제를 유발한 원생에 대해서는 상담전담 직원이 수시로 상담을 실시한다. 개별상담은 상담지도자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문제있는 원생의 자발적인 청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년원내 상담실에서 개별상담이 이루어지고 주간에는 생활지도계에서 담당자가 지정되며 야간에는 기독교 종교지도위원이 상담을 담당한다.

비행소년들 상당수가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때 상담을 넘어서서 전문적인 심리치료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소년원에 심리치료가 도입되기 시작해서 현재도 사정에 따라 각 소년원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원의 심리치료는 사회내의 심리치료와는 달리 몇가지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심리치료가 자유가 제약되는 수용시설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심리치료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특수성은 내담자인 원생들이 갖는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은 성

격이 충동적이고, 파괴적이며,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의혹적 측면을 갖고 있고, 애정이 결핍이고 상대방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소년원의 심리치료는 원생들의 상실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원생스스로가 변화하고자 노력하여야 심리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생들에게 자기실현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줌으로써 비권위적인 방식으로 내면이 치유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각 소년원별로 독자적이고 효과가 검증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일반인들이나 정신질환자의 심리치료에 쓰이는 기법들을 소년원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이훈규·김성언, 1996:123). 일부 소년원별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은 예컨대, 단학, 마인드콘트롤, 감수성훈련, 분노조절훈련, 심리극, 내관법 등을 들 수 있다.

## 2. 소년교도소

### 1) 개요

전국의 교정시설 44개 중 20세 미만의 남자 소년수형자를 전담하여 수용하는 시설로는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수용원칙은 천안소년교도소에는 초범을,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재범이상을 수용한다. 여자 소년수형자의 전담시설은 없어서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성인과 소녀를 분리수용하고 있다.

각 소년교도소의 1일 평균수용인원은 2000년에 천안교도소가 1,350명이었고, 김천교도소가 1,150명이었다(박길영, 2001:27). 죄명별 현황을 보면, 천안교도소에는 강도, 강간, 절도의 순으로 많았고, 김천교도소에는 강도, 절도, 폭력/상해의 순으로 많았다. 천안에는 초범만 수용되어 있는데 비해, 김천에는 2범이 656명, 3범이 68명 순으로 많았다.

### 2) 수용현황

#### (1) 1일 평균 수용인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보면 김천소년교도소는

1998년의 경우 수용정원 1,150명에 1일 평균 1,382명을 수용, 정원보다 232명(20.2%)이나 많은 인원을 과밀 수용하였고, 천안소년교도소는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김천소년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기결수형자와 같이 수용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급히 미·기결 수용자를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박길영, 2001:26)

<표4> 일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수용인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내용			
			수형자	미결	노역유치	
1996	천안	1500	1005	1004	0	1
	김천	1200	1231	994	234	3
1997	천안	1500	990	990	0	0
	김천	1200	1225	1023	196	6
1998	천안	1350	1119	1119	0	0
	김천	1150	1382	1121	246	15
1999	천안	1350	1221	1219	20	2
	김천	1150	1294	1049	233	12
2000	천안	1350	951	942	183	16
	김천	1150	1141	948	0	3

자료 : 법무부 교정국, 박길영(2001)에서 재인용

## (2) 죄명별 현황

이들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죄명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천안소년교도소는 수용인원 1,265명에 강도 등이 501명(40.4%)이었고, 김천소년교도소는 수용인원 1,483명에 절도가 382명(25.8%)으로 가장 많았다(표5 참조).

<표5>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살인	강도 등	강간 등	폭력상해	절도	과실	기타	합계	
1996	천안	48	324	160	106	166	21	118	943
	김천	90	267	79	223	303	36	216	1,224
1997	천안	48	384	213	142	209	25	129	1,150
	김천	75	309	83	242	344	34	211	1,298
1998	천안	52	501	234	174	185	21	98	1,265
	김천	70	326	86	287	382	49	263	1,463
1999	천안	59	416	229	149	167	32	76	1,128
	김천	58	272	62	245	333	26	185	1,181
2000	천안	65	333	187	91	112	12	93	893
	김천	52	268	67	157	259	12	242	1,057

자료 : 법무부 교정국, 박길영(2001)에서 재인용

## (3) 범수별 현황

범수별 수용인원은 2000년의 경우 천안소년교도소는 893명 전원이 초범이고 김천소년교도소는 전체수용인원 1,057명에 초범이 305명(28.9%), 2범이 656명(62.0%), 3범이 68명(6.4%), 4범이 12명, 5범 이상이 16명이다.

## 3) 운영현황

천안소년교도소의 경우, 직원 295명에 수용정원은 1,350명으로 교정직원의 1일 평균 부담수용인원은 5.2명이고, 김천소년교도소는 직원 235명에 수용정원은 1,150명으로 교정직원의 1일 평균 부담수용인원은 5.6명이다. 참고로 선진국의 경우는 미국 1.32명, 영국 2.3명, 프랑스 1.21명, 일본 1.21명인 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 교도소의 부담비율이 과도한 수준이다(박길영, 2001:25).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에는 교육교화 담당인 교회직 공무원이 7명 배치되어 있으나 이들 교회직 공무원은 학과교육 이외에 종교지도, 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을 비롯하여 서신검열 등 일반 교무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체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회사 및 교정직 공무원이나 교학력의 경비교도대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체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박길영, 2001:61).



<표6> 소년교도소 직원현황

구분	계	교정직	교회직	분류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천안소년교도소	295	258	7	4	6	6	14
김천소년교도소	235	206	7	3	3	4	12

자료 : 박길영(2001)

4) 분류 및 누진처우제도

(1) 분류심사제도

분류심사의 목적은 첫째, 범죄의 동기와 회수를 규명하여 개선의 난이도, 사고발생 가능성 등 보안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둘째, 생육과정, 교육정도, 가정환경, 지능지수 등을 측정하여 교정교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직업, 근로의욕, 취미, 소질, 적성 등을 판단하여 부과할 작업종목과 훈련방법을 결정하고, 넷째, 신체 및 정신상태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보건위생관리대책을 마련하며, 다섯째, 보호자의 유무, 근친, 교우관계를 조사하여 석방후 보도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박길영, 2001:38).

(2) 누진급 처우제도

누진처우제도는 수행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완화해 나감으로써 수행자의 자기개선노력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누진처우의 단계는 처우가 가장 나쁜 제4급으로부터 처우가 가장 좋은 제1급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일정한 책임점수를 부여하여 매월의 소득점수(소행, 작업, 상훈 등)로 책임점수를 공제해 나가다가 책임점수가 0으로 되었을 때 다음 상위단계에 진급시키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표7> 누진계급별 처우기준

처우 내용	1 급	2 급 (가급)	3 급 (나급)	4 급 (다급)
자치활동	• 자치활동 (대표자선정) • 매주1회 토론회	• 자치활동 • 매주1회 토론회		
전화	회 수 월 5회	월 3회		
내용	통화내용 청취조건, 전화요금 자비부담원칙			
회 수	수 시	월 6회	월 5회	월 4회
장 소	적당한 장소	접견실	접견실	접견실
교도관 참여	2급이상 접견시 교도관 불참여 원칙			
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발송할 서신의 요금은 자비부담으로 하고</li> <li>• 일요일, 휴일, 휴게시간에 서신과 문서 등의 집필을 할 수 있고</li> <li>• 서신의 검열, 발송,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하며</li> <li>• 서신발송의 회수는 제한없다.</li> <li>• 교부가 불허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폐기한다.</li> <li>• 소장이 교화·처우상 특히 필요시 누진계급별 접견회수에 맞추어 회수제한이 가능하다.</li> </ul>			
물품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자에 대한 급여는 계급의 진급에 따라 그 계급에 상응하게 한다. 다만, 식량, 음료, 기타 건강유지에 필요한 것은 계급에 의하여 구별하지 아니한다.</li> <li>• 수행자의 거실에는 책상, 서화, 화분, 거울, 달력, 텔레비전 등의 비품을 둘 수 있다.</li> <li>• 라디오, TV시청, 시계착용, 신문열람,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자기 사진송부는 계급별 처우를 하지 않으며 모든 수행자에게 적용한다.</li> </ul>			
차입물품사용	차입물품사용			
공동물품대여	공동물품대여			
교육·교회	경기·오락회 월2회	경기·오락회 월2회 (2급이상 소년수는 무제한)		
사회견학	사회견학	사회견학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외부 종교행사참석				
영화등 관람(자비)				

5) 교과교육

성인 및 소년을 수용하는 모든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과정의 근거는 「수형자등 교육규칙」(법무부령 제237호)이다. 이 규칙에 의거하여 각 교정시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초등과, 중등과, 고등과 등의 학과 교

육과정을 두고 검정고시나 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수형자의 학습보장을 위한 특별학급(검정고시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교도소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학과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고 작업을 면제하며, 지도교사들에 의해 집중지도를 받도록 한다.

### (1) 중고등과정 학과교육

방송통신교육은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1981년부터 인천소년교도소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 운용해 오다가 1990년에 천안소년교도소로 이전한 후에는 천안중앙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는 1982년부터 김천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 운용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01).

교도소내에서 행해지는 교과교육과정으로서 초등기초반은 3개월, 초등반·중등반·고등반은 각각 1년동안 실시되고 있다. 이 기간은 정규학교 교육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1일 수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 천안 및 김천 소년교도소에서는 최근 5년동안 매년 평균 140여명의 소년수형자가 중고등과정 학교교육을 받고 있다.

### (2) 검정고시반

학과교육 과정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교정시설에 검정고시반을 편성하여 중입반, 고입반, 고졸반 등 3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2곳의 소년교도소에서 매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3)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중 졸업자 비율은 25-30%에 불과하다. 방송통신고교수료후에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정규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다.

## 6) 직업훈련

### (1) 직업훈련의 종류

교도소수형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법무부에서 정한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공공직업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 노동부 인가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훈련인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천안소년교도소는 1969년이래 노동부의 인가를 얻어 법무부 제10공공직업훈련소로서 11개 직종(봉제, 용접, 선반, 건축배관,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전자기기 등)의 훈련을 실시하고, 김천소년교도소는 제17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8개 직종(조적, 미장, 양복봉제, 도배, 이용, 보일러설비, 전자기기, 자동차정비 등)을 훈련하고 있다.

일반직업훈련은 노동부와 협의없이 교정기관장이 각 훈련소 실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천안소년교도소는 일반기계조립 1개 직종, 김천소년교도소는 인장공 1개 직종을 훈련시키고 있다.

외부출장직업훈련은 사회 우수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직업훈련전문학교에 수형자를 출퇴근시키며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천안 및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1995년부터 일성종합건설(주) 직업전문학교에 전기공사 직종의 외부출장 직업훈련을 실시하다 현재는 회사사정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 (2) 직업훈련대상자 선정

직업훈련 대상자는 분류심사 결과를 고려하고, 형기, 죄질, 경력, 교육정도, 범수 등을 참작해 선정하고 있다. 직업훈련은 학과교육에 비해서 규모는 크나, 총 직업훈련인원이 전체 소년수형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여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전원 다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 II. 비행청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 1. 이론적 배경

#### 1) 규범적 해결과 실제적 해결

최근에 일본에서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은 규범적 해결과 실제적 해결이 각기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통일시켜 실현할 수 있는 지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체적 해결”이 없는 한, “규범적 해결”은 어렵다.

규범적 해결과 실제적 해결과의 관계는 국가와 개인의 분쟁인 범죄사건, 특히 청소년의 비행사건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비행은 국가의 행위규범에 대한 소년의 도전이며, 이에 대해 국가는 불가피하게 범죄·비행사건으로 개입하는 사법 활동을 한다. 그러나 그 사법과정에서 단지 행위의 외형이나 법적 평가에 기초하여 그에 걸맞는 제재를 하는 「규범적 해결」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행사건이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현행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행문제의 해결·완화가 소년사법 전체의 책임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보호·교정·복지·교육기관 등과의 팀웍에 의한 인간적·과학적 문제해결 노력과 사업에의 시민참여를 기대하는 법의 기본구조는 그야말로 사법복지로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의 성숙이나 인간발달에 관한 문제가 뚜렷하게 확대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완화가 사법의 과제로 제기될 때, 사법은 법의 정신에 따른 규범적 해결을 기본 임무로 함과 동시에, 그 규범적 해결이 사회적 사실로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자체의 해결·완화, 즉 문제의 실제적 해결과 일체가 되어 전개될 수 있는 유연한 절차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에서 규범적 해결은 실제적 해결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며 상호작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사법과 복지가 각기 자신의 역할만을 행하는 상태로부터 양자가 일체를 이루는 「사법복

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 2) 청소년 사법복지론

사법이란 「법규를 적용하여 어떤 사항의 적법·위법 또는 이를 규정하는 권리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사법의 본래 사명은 법에 의한 권리의 실현 내지는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있다. 형사사법의 사명은 기소된 사실의 진부(眞否) 판단, 책임에 따른 공정한 형벌의 선고이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에 있어서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법적·규범적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실제적 해결이 추구된다. 일본 사법복지론의 개척자인 야마구치(山口幸男) 교수는 “국민의 사법활용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사법을 통한 일정한 사회문제의 개별적·실체적 완화/해결을 추구하는 정책과 그 구체적 업무를 사법복지라고 부를 경우, 그것은 개별문제의 개별적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중국적으로는 사법이 책임을 지는 규범적 해결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적 해결·완화도 사법과정 그 자체에서 전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복지업무와의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山口幸男, 1991:17).

사법복지는 일반복지행정이나 일반형사정책과 구별되는 영역이다. 사법에서 비행(범죄)을 계기로 복지적 지원이 제공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점에서 전자와 구별되며, 사회방위보다도 소년 자신의 복지·교육을 중시하는 점에서 후자와 구별된다.

따라서,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사법복지는 단지 범죄억제·범죄통제를 근본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에 대하여 과제를 제기하는 국민의 요구에 공감하고 그것을 회구하는 「문제해결·완화」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모든 사법과정에서 진정으로 「인간으로 존중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사법에 요구되고 있는 휴머니즘이자 가치일 것이다. 소년사법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 3) 비행임상과 사법복지

복지정책대상으로서의 소년교도소 수행자를 위한 사법복지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일차적 욕구에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소년수형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은 재범방지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능력의 신장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욕구의 개념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려는 개인의 욕망을 의미한다면, 소년수형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심리적 결핍은 매우 큰 것으로 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 지원은 한층 폭 넓게 다루어져야 한다(전경숙·박병식·권소정, 2001).

따라서, 경제적·사회심리적 결핍이 큰 소년교도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는 법과 제도, 형벌의 강화를 통한 규범적 통합보다는 이들의 상대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임상이 소년사범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이상, 소년법의 정신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첫째, 소년의 발달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년 스스로가 비행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자각을 제고시키고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지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년이나 그 가족 등을 진단과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일방적으로 원인을 발견하여 처방전을 부여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사항과 소년이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현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년의 인식이나 감정을 무시한 곳에는 지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소년에게 다가가 비행과 현실을 직시하여 공동으로 문제의 해결·완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로, 소년범죄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년의 피해자적 측면에 눈을 돌려 생활기반의 조정과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비행의 원인을 소년의 자질이나 인격적 문제로 돌리지 않고, 현실의 인간관계나 생활환경 전체를 시야에 넣어 전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시점에서 지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와 보람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년은 소외상태에 놓여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학적이 있는 소년이라면 교육현장과의 협력관계에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무직·미진학·중퇴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자원으로서의 협력자나 생활장소의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넷째로, 피해자를 시야에 넣은 지원이 필요하다. 범죄는 어디까지나 타인에게 피

해를 주는 행위이며,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소년을 인도하고,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룰(rule)을 학습시켜야 한다.

## 2. 조사설계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범죄를 2회이상 범한 경험이 있는 상습적인 범죄소년으로서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남자 청소년 중에서 본범의 죄명이 '폭력 또는 상해'(제1유형), '살인 또는 과실치사'(제2유형), '성폭력'(제3유형), '강도 또는 절도'(제4유형)인 청소년 200명을 교도소 당국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 (1) 연령과 범죄경력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194명의 교도소수감 청소년들의 연령 및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범죄유형별로 나눠보면 폭력·상해범 39명(20.3%), 살인·과실치사범 12명(6.2%), 성폭력범 31명(16.1%), 강도·절도범 110명(57.2%)으로서 강도절도범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폭력·상해범과 성폭력범이 많다.

연령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19-20세가 6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범죄유형별로 보아도 대체로 19-20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단지 살인·과실치사범의 경우에만 21-22세가 더 많았다.

범죄경력은 경찰입건, 보호관찰처분, 소년원송치처분, 형사처벌 등 네 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경찰입건경력에 있어서는 '5번이상'이 34.2%로 가장 많았고, '4번'이 17.3%, '3번'이 23.7%로 나왔다.

과거에 보호관찰처분 받은 경력에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보호관찰받은 경력이 전혀없다는 소년이 20.3%이고 나머지 80%가량은 1번이상 보호관찰받은 경력이 있었다.

과거에 소년원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소년은 43%를 차지하였고, 그중에서 절반가량은 1번 수용되었고 2번 수용된 경우가 12.2%이었고, 4번이상 수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도 6명 있었다.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현재 수감까지 포함)에 있어서는 대부분(72.4%)이 이번 수감이 처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교도소에 2번째 수감된 소년은 15.4%, 3번째 수감된 소년은 9.0%이며 5번이상 수감된 소년이 2명 있었다.

<표8> 조사대상 범죄소년들의 범죄경력 배경

변인	소년의 범죄유형				전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절도범 빈도(%)	
연령					
17-18세	0 (0.0)	1 (8.3)	0 (0.0)	10 (9.1)	11 (5.7)
19-20세	30 (76.9)	1 (8.3)	18 (58.0)	67 (60.9)	116 (60.4)
21-22세	9 (23.1)	7 (58.4)	10 (32.3)	24 (21.8)	50 (26.1)
23-24세	0 (0.1)	3 (25.0)	3 (9.7)	9 (8.2)	15 (7.8)
전체	39 (100)	12 (100)	31 (100)	110 (100)	192 (100)
주거형태					
1 회	0 (0.0)	4 (36.4)	3 (9.6)	7 (6.4)	14 (7.4)
2 회	4 (10.3)	4 (36.4)	7 (22.6)	18 (16.5)	33 (17.4)
3 회	10 (25.6)	1 (9.0)	6 (19.4)	28 (25.7)	45 (23.7)
4 회	9 (23.1)	1 (9.1)	3 (9.7)	20 (18.4)	33 (17.3)
5 회이상	16 (41.0)	1 (9.1)	12 (38.7)	36 (33.0)	65 (34.2)
전체	39 (100)	11 (100)	31 (100)	109 (100)	190 (100)
가정경제수준					
없음	3 (7.9)	7 (63.6)	7 (23.4)	21 (19.4)	38 (20.3)
1 회	12 (31.6)	1 (9.1)	6 (20.0)	29 (26.8)	48 (25.7)
2 회	9 (23.7)	2 (18.2)	7 (23.3)	27 (25.0)	45 (24.1)
3 회	8 (21.0)	1 (9.1)	7 (23.3)	25 (23.2)	41 (21.9)
4회이상	6 (15.8)	0 (0.0)	3(10.0)	6 (5.6)	15 (8.0)
전체	38 (100)	11 (100)	30 (100)	108 (100)	187(100)
신평판정					
없음	20 (51.3)	9 (81.8)	22 (71.0)	57 (52.8)	108 (57.1)
1 회	7 (17.9)	1 (9.1)	4 (12.9)	32 (29.6)	44 (23.3)
2 회	5 (12.8)	1 (9.1)	4 (12.9)	13 (12.0)	23 (12.2)
3 회	4 (10.3)	0 (0.0)	0 (0.0)	4 (3.7)	8 (4.2)
4회이상	3 (7.7)	0 (0.0)	1 (3.2)	2 (1.9)	6 (3.2)
전체	39 (100)	11 (100)	31 (100)	108 (100)	189 (100)
범죄수습기간					
1 회	31 (79.5)	9 (90.0)	24 (77.4)	72 (66.6)	136 (72.4)
2 회	3 (7.7)	1 (10.0)	2 (6.5)	23 (21.3)	29 (15.4)
3 회	3 (7.7)	0 (0.0)	5 (16.1)	9 (8.3)	17 (9.0)
4 회	2 (5.1)	0 (0.0)	0 (0.0)	2 (1.9)	4 (2.1)
5 회이상	0 (0.0)	0 (0.0)	0 (0.0)	2 (1.9)	2 (1.1)
전체	39 (100)	10 (100)	31 (100)	108 (100)	188 (100)

(2) 가정환경 배경

조사대상 소년들의 가정환경배경은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지(가족결손)여부와 부

모의 교육수준을 지표로 삼았다(표9 참조).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정상가정과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각각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세분화해 보면 살인·과실치사범과 폭력·상해범 집단에서 가정결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다수가 고등학교수준(42%)의 학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학력수준(25%)이 많았다.

<표9> 조사대상 범죄소년들의 가정환경 배경

변인	소년의 범죄유형				전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절도범 빈도(%)	
부모동거여부					
부모 동거	18 (46.2)	4 (36.4)	17 (54.8)	59 (53.6)	98 (51.3)
부모 별거	21 (53.8)	7 (63.6)	14 (45.2)	51 (46.4)	93 (48.7)
전체	39 (100)	11 (100)	31 (100)	110 (100)	191 (100)
아버지교육수준					
무학	1 (2.8)	0 (0.0)	2 (6.4)	3 (2.9)	6 (3.3)
초등졸 이하	4 (11.1)	1 (11.2)	7 (22.6)	22 (21.1)	34 (18.9)
중졸 이하	7 (19.5)	4 (44.4)	8 (25.8)	27 (26.0)	46 (25.6)
고졸 이하	21 (58.3)	4 (44.4)	11 (35.5)	41 (39.4)	77 (42.8)
대학 이상	3 (8.3)	0 (0.0)	3 (9.7)	11 (10.6)	17 (9.4)
전체	36 (100)	9 (100)	31 (100)	104 (100)	180 (100)
어머니교육수준					
무학	1 (3.3)	0 (0.0)	1 (3.5)	3 (3.3)	5 (3.2)
초등졸 이하	7 (23.4)	2 (25.0)	6 (20.7)	15 (16.7)	30 (19.1)
중졸 이하	5 (16.7)	3 (37.5)	9 (31.0)	30 (33.3)	47 (29.9)
고졸 이하	16 (53.3)	3 (37.5)	12 (41.4)	35 (38.9)	66 (42.1)
대학 이상	1 (3.3)	0 (0.0)	1 (3.4)	7(7.8)	9 (5.7)
전체	30 (100)	8 (100)	29 (100)	90 (100)	157 (100)

(3) 생활수준 배경

소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질문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표10 참조).

범죄소년들은 자신의 가정경제수준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59%),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25.8%). 경제사정이 풍족하다고 응답한 소년은 7.3%에 불과하다.

이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절반정도가 자기집이고, 나머지는 전·월세 세입자

가 46.8%이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가 4.3%이다.

<표10> 조사대상 범죄소년들의 생활수준 배경

변인	소년의 범죄유형				전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 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절도범 빈도(%)		
가정경제수준	매우 어렵다	3 (7.7)	0 (0.0)	3 (9.7)	9 (8.3)	15 (7.9)
	어렵다	10 (25.7)	4 (36.4)	6 (19.3)	29 (26.6)	49 (25.8)
	보통이다	24 (61.5)	5 (45.4)	18 (58.1)	65 (59.6)	112 (59.0)
	풍족하다	2 (5.1)	2 (18.2)	4 (12.9)	5 (4.6)	13 (6.8)
	매우 풍족하다	0 (0.0)	0 (0.0)	0 (0.0)	1 (0.9)	1 (0.5)
전체	39 (100)	11 (100)	31 (100)	109 (100)	190 (100)	
주거수준	영구임대아파트	2 (5.1)	0 (0.0)	3 (9.7)	3 (2.8)	8 (4.3)
	월세	4 (10.3)	3 (33.3)	4 (12.9)	9 (8.4)	20 (10.8)
	전세	13 (33.3)	2 (22.2)	12 (38.7)	40 (37.4)	67 (36.0)
	자기집	20 (51.3)	4 (44.4)	12 (38.7)	55 (51.4)	91 (48.9)
	전체	39 (100)	9 (100)	31 (100)	107 (100)	186 (100)

##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2년 5월 중 3일간에 걸쳐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실시하였다. 설문실시를 위하여는 교도소 직원 1인을 선정하여 연구목적과 설문실시방법 등에 대해 본 연구자가 사전에 설명한 후 조사원으로 참여케 하였다.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빈번한 비행으로 인해 수사 또는 조사를 자주 받아본 경험이 있고 자신의 범죄성을 언제나 감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높은 특성이 있다. 그래서 본 설문내용에 대해서도 방어적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 본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본인이 자기 설문지를 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봉투를 10명당 1장씩 나눠주고 본인들이 설문지를 10부씩 대봉투에 넣어 직접 밀봉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설문지는 194부이었다. 일부 청소년은 한글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문에 응할 수 없었다.

## 3) 조사내용

### (1) 범죄소년들의 개인적·가족적 위험요소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중심주제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소년들이 어떤 사고패턴과 정서적 특성을 가지며, 그들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까지 성장해 온 가정의 심리사회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개인적·가족환경적 요인들이 범죄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 (2) 범죄소년처우의 사법복지 개선욕구 및 평가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또다른 주제는 범죄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 소년교도소의 교육적·복지적 실태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이들이 개선을 희망하는 교도소내 시설이 무엇이며 스스로 교정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현행 교정처우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여 소년교도소의 사법복지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범죄소년들에 대한 전문화된 사법복지정책과 처우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은, 이들 소년들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들이긴 하나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교도소에서는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사법적 형사처벌을 집행하는 시설이라는 정의적 이념과 더불어 소년들을 교육·교화시키며 결손을 치료해 주는 합목적적 이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 4) 조사도구

### (1) 조사도구의 개발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인으로서 소년들의 범죄경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네 개 설문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소년들이 현재 수감된 범죄의 유형에 관한 정보는 교도소 당국의 자료협조를 받아 본범의 범죄명에 따라 분류하였다.

범죄소년들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적 위험요소들과 가정환경적 위험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청소년상담원(유성경 외, 2001)에서 비행소년들과 일

반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설문문항의 일부를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개발한 문항들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 동 연구에서는 각종 관련 문헌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안된 비행유발 위험요소들을 광범위하게 개관하고 체계적인 문항검증 과정들을 거쳐 최종개발된 문항들이라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두번째 선정이유는 2000년에 전국의 중고생 및 소년원생과 소년교도소 수용소년에 대해 실시된 대규모 조사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면 일반학생집단과 범죄소년집단과의 특성차이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범죄소년들이 소년교도소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법복지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설·프로그램·정책에 대한 개선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가 미비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표11> 범죄 위험요소의 측정내용 및 신뢰도(Cronbach  $\alpha$ )

구성 내용	문항수	문항 번호	본연구 신뢰도	선행연구 신뢰도
공격성	5	나에 대하여... 6, 7, 8, 9, 10	.83	.81
개인적 요인	7	12, 13, 14, 15, 16, 17, 21	.86	.82
반사회적 인지	5	1, 2, 3, 4, 5	.80	.77
문제행동 조기시작	2	36, 37	.67	.71
<b>전 체</b>	<b>19</b>		<b>.86</b>	<b>.83</b>
학대적 양육	5	가족에 대하여... 4, 5, 28, 29, 30	.75	.71
가정 양육	3	6, 7, 9	.76	.70
가정 양육	3	8, 20, 21	.63	.62
가정 양육	7	10, 11, 12, 13, 14, 15, 16	.85	.85
부모의 허용적태도	3	17, 18, 19	.64	.71
<b>전 체</b>	<b>21</b>		<b>.89</b>	<b>.88</b>
가정 환경	5	31, 32, 33, 34, 35	.78	-
형제의 비행문제	4	36, 37, 38, 39	.83	-
<b>전 체</b>	<b>9</b>		<b>.82</b>	<b>-</b>
또래 요인	6	내가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서 1, 2, 3, 4, 5, 6	.82	.86
<b>전 체</b>	<b>6</b>		<b>.82</b>	<b>.86</b>

\* 선행연구는 유성경 외(2001)임.

## (2) 연구변인의 선정 및 측정

### ① 소년의 범죄유형과 범죄경력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범죄들은 절도, 강도, 폭력, 상해, 성폭력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기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범죄소년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절도와 강도는 재산범죄이므로 묶어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했고, 폭력과 상해는 법률상 차이가 신체손상 여부에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했으며, 성폭력은 범죄성격이 여타 범죄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 집단으로 분류했다. 끝으로, 살인은 소년범죄 중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범죄이나 동 교도소에 소수가 수감되어 있어서 과실치사범과 함께 본 조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따라서, 소년의 범죄유형은 폭력·상해범, 살인·과실치사범, 성폭력범, 강도·절도범의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소년의 범죄경력을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으로 선정하고, 이 변인의 측정에 사용된 지표는 네 개이다. 즉, 경찰에 입건된 횟수, 보호관찰처분 받은 횟수, 소년원에 수용된 횟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횟수 등이다. 심층분석을 위해서는 네 개 변인을 다시 조합하여 '경찰입건경력'과 '보호/형사처분 경력'의 두 개 변인으로 축소하였다. '경찰입건경력'은 단일 문항의 응답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보호/형사처분 경력' 변인은 보호관찰처분 받은 횟수, 소년원 수용횟수, 소년교도소 수용횟수 등 3개 응답빈도를 합하여 생성하였다.

범죄경력을 측정하는 4개문항을 종합하여 단일의 종속변수를 생성하는 것이 곤란한 이유는 경찰입건경력은 나머지 세 개 변인과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보호관찰처분, 소년원수용, 소년교도소수감 등은 완전히 별개의 지표이므로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범죄경력 지표로 사용하였다.

### ② 범죄관련 개인적 위험요소

개인적 위험요소는 공격성, 우울 및 불안, 반사회적 인지경향,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으로 측정하였으며,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위험요소를 측정하는 19개 문항은 각 문항의 점수를 역산(reverse)시켜 하위요소별 총합을 구하였기 때문

에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86$  이고, 이는 유성경 외(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83과 유사한 수준이다(VI-4 참조).

• 공격성

공격성이란 생명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을 때나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에 대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도구적 공격성과 남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적대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5개 문항에 걸쳐 나타난 공격성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3$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81로 보고되었다.

• 우울 및 불안

우울 및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6$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82로 보고되었다.

• 반사회적 인지경향

반사회적 인지경향이란 기존의 규칙위반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신체적 힘에 대한 추구등을 의미한다. 반사회적 인지경향을 측정하는 문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반사회적 인지경향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0$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77로 보고되었다.

•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이 변인은 만 12세 이전에 발견된 문제행동들을 측정하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문제되는 행동 때문에 어른들에게 자주 혼나는 편이었다” “초등학교 때 나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부모님이 학교에 불러가거나 집으로 전화한 적이 종종 있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 조기시작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67$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71로 보고되었다.

③ 범죄관련 부모양육 위험요소

소년범죄와 관련될 것으로 포함시킨 자녀양육상의 위험요소는 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 가정불화, 가족관계상의 문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등 5가지 차원의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양육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측정하는 21개 문항은 각 문항의 점수를 역산(reverse)시켜 하위요소별 총합을 구하였기 때문에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89$  이고, 이는 본 도구의 원개발 연구인 유성경 외(2001)에서 보고된 .88로서 유사한 수준이다.

• 학대적 양육태도

학대적 양육태도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학대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부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 있다” 등 5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75$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71로 보고되었다.

• 비일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부모님에게 왜 혼나는지 모른 채 혼나는 경우가 많다” 등 3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76$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70 으로 보고되었다.

• 가정불화

가정불화는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으시다”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63$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62 로 보고되었다.

• 가족관계상의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나는 가족에게 내 의견을 주저없이 말하기가 어렵다” 등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85$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85 로 보고되었다.

•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를 묻는 문항은 “우리 식구들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등 5개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  $\alpha=.64$  이고, 유성경 외(2001)에서는 .71 로 보고되었다.



#### ④ 범죄관련 가정환경 위험요소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것으로 빈번히 보고되는 위험요인들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능력, 부모별거시 자녀의 연령, 부모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상의 부적응, 가족내 비행하위문화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양한 측면의 가정내 범죄유발 위험요소들을 각각의 예측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 • 부모의 교육력

부모의 교육력 요인은 부와 모 각각의 교육수준을 무학에서 대학원까지의 학력수준을 10단계로 나누어 측정된 후 합하여 '부모의 교육력' 변수를 생성하였다.

##### • 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 요인은 두 개의 문항을 통해 생성하였다. 첫째 문항은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likert식 5점척도상에서 평가하고 둘째는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소유형태(영구임대, 월세, 전세, 자가 등)에 따라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두 점수를 합하여 '부모의 경제력'으로 보았다.

##### • 부모와 헤어질 때 나이

현재 부모 두분이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소년에 한하여, 부모와 처음 헤어질 때 소년의 나이를 직접 적도록 하였다.

##### • 부모의 적응문제

부모의 적응상 문제는 부모가 경찰체포, 정신장애, 만성적 신체질환, 신체장애, 약물중독 등 5개 영역에서 병리적 부적응문제를 갖고 있는 정도를 likert식 5점척도상에서 측정하고 점수를 합하여 하나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부모의 적응문제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은 각 문항의 점수를 역산(reverse)하여 총합을 구하였기 때문에 변수값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문항간 일치도)는 Cronbach  $\alpha=.78$  이다.

##### • 형제의 비행문제

형제의 비행문제는 형제 중에 경찰체포, 학교중퇴, 가출, 청소년시절 술담배경험 등 4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비행경력이 있는지를 likert식 5점척도상에서 측정하고 점수를 합하여 하나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형제의 비행문제를 측정하는 4개 문

항은 각 문항의 점수를 역산(reverse)하여 총합을 구하였기 때문에 변수값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83$  이다.

#### ⑤ 범죄관련 또래집단 위험요소

본 연구에서 범죄경력과 관련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에 포함시킨 또래관련 요인으로는 다양한 비행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의 접촉정도를 측정하여 '또래의 비행문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음주, 약물남용, 가출, 경찰에 잡혀감, 폭력서클에 가입, 중퇴 등 6개 비행에 대한 또래 관여도를 likert식 5점척도상에 표시하게 하고 이를 합하여 '또래 비행문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alpha=.82$  이다.

#### ⑥ 현행 사법복지처우에 대한 만족도

##### • 분류심사-처우 만족도

소년교도소에 입소하여 소년이 받은 여러 가지 분류심사의 결과가 그후 수용생활 중에 받는 교정처우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likert식 5점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변환하였다.

##### • 시설-환경 만족도

소년교도소내의 제반 시설 및 환경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지를 질문하여 likert식 5점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변환하였다.

#### ⑦ 현행 교정처우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 • 교정교화 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프로그램

현재 교도소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11가지 종류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중에서 '범죄성에 대한 교화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골라서 순서대로 1, 2, 3 순위를 표시하게 하였다. 선택지로 제시된 11개 프로그램은, 학과교육, 직업훈련, 정신교육, 생활지도, 종교활동, 사회참관, 봉사활동, 귀휴, 외부통근, 소년단, 교화위원활동

등이다.

소년들 각자가 1순위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빈도값에 가중치 3을 곱하고, 2순위로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가중치 2를 곱하고, 3순위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그대로 빈도값을 원점수로 계산하여 각 프로그램이 선정된 전체빈도수를 합산하여 효과성 평가점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프로그램이다.

- 사회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 프로그램

상기한 효과성 평가와 동일한 양식으로 질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11가지 프로그램 각각의 평가점수 총합을 산출하였다.

- 효과가 낮아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평가된 프로그램

상기한 효과성 평가와 동일한 양식으로 질문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11가지 프로그램 각각의 평가점수 총합을 산출하였다.

### ⑧ 향후 사범복지 개선에 관한 욕구

- 분류수용제도의 개선

교도소내에서 범죄기술의 습득을 차단하고 교정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류수용을 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는가를 묻고 5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 교도소내 시설의 개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10가지 시설 중에서 3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 출소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사회에 나가서 재범하지 않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출소할 때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를 원하는 처우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5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 5) 교도소내 설문조사의 유의점

- 필기 도구의 준비

수용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경우, 현행 행형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 작성시 필기도구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도소내 직업훈련생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개인별로 필기도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비훈련생(예컨대, 취업수 등)은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있지 않다.

- 응답 장소의 선택

설문작성 응답 장소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가 현실문제로 나타난다. 설문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설문내용이 길고 복잡할 경우에는 일과 후 거실(숙소)에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설문문항의 결과 양의 조절

설문문항이 많을 경우, 수용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산만해 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급적이면 설문 내용은 아주 쉬운 용어로 설명하는 데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소년수형자들 가운데는 어휘 또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자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 본 설문실시상에 있어서 두드러진 제한점이었다.

- 설문방식에 대한 상세한 지시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설문목적과 응답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문제 1 : 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라 개인·가족·또래 영역에서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소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범죄경력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

며 각 요인들이 가지는 상대적 예언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라 분류심사 및 수용제도, 교정시설환경, 그리고 교정처우프로그램 영역에서의 만족도 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한, 각 영역에 있어서 범죄유형집단에 따라 사법복지적 개선욕구는 어떠한 집단특성을 보이는가?

#### 4. 분석 결과

##### 1) 청소년의 범죄유형과 범죄경력과의 관계

실행선고를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이전에도 얼마나 자주 범죄를 저질렀는지(범죄의 상습성)를 측정할 수 있는 범죄경력 지표로서는 '경찰입건경력'과 '보호처분·형사처분경력'을 조사하였다. 최초의 사법기관으로서 경찰에 입건된 횟수를 '경찰입건 경력'으로 사용하였고, 보호관찰처분 또는 소년원처분 또는 교도소 수감된 횟수를 질문하여 세 개 변수값을 합하여 '보호·형사처분 경력' 변인을 생성하였다.

범죄유형별로 과거에 경찰에 입건된 평균경력을 보면, 폭력상해범이 3.95회로 가장 높았고, 강도절도범 3.55회, 성폭력범 3.45회, 살인과실치사범 2.18회 순으로 과거 경력이 있다(표12 참조). 집단간의 전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범죄유형에 따른 경찰입건경력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별집단간의 차이에 관한 Turkey 쌍별비교(pairwise comparison)에서 집단간에서 전과 차이가 유의하게 나온 쌍은, 폭력상해범과 살인과실치사범, 강도절도범과 살인과실치사범, 성폭력범과 살인과실치사범 집단이다(표13 참조).

다음으로, 범죄경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원판결까지 받은 '보호처분·형사처분 경력' 지표를 중심으로 집단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과거경력이 폭력상해범 집단에서 4.39회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강도절도범 3.92회, 성폭력범 3.57회, 살인과실치사범 2.20회 순으로 처분경력이 있다. 집단간의 전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범죄유형에 따른 법원처분경력의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별집단

간의 차이에 관한 Turkey쌍별비교에서 집단간 전과차이가 유의하게 나온 쌍은, 폭력상해범과 살인과실치사범 집단 뿐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과거 범죄경력 지표를 무엇으로 삼든지 간에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경력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현재 교도소 수감소년들 중에서 과거 범죄전과가 가장 많은 집단은 폭력상해범이고, 가장 적은 집단은 살인·과실치사범으로 나왔다.

살인범은 상습범죄자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흉악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 충동으로 인해 단번에 살인을 저지르는 초범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살인범과 과실치사범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면 살인범의 과거범죄경력이 이보다 더 낮게 나올 것이라고 교도소 실무자는 해석한다.

<표12>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경력/사법처우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년의 범죄유형			
		폭력/상해범 (N=39)	살인/ 과실치사범 (N=12)	성폭력범 (N=31)	강도/절도범 (N=110)
경찰입건 경력	M	3.95	2.18	3.45	3.55
	SD	1.05	1.33	1.46	1.28
보호/형사 처분경력	M	4.39	2.20	3.57	3.92
	SD	2.24	1.69	2.10	2.26

<표13>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경력/사법처우의 변량분석

종속변인	Source	DF	자승합(SS )	평균자승 합(MS)	F값	유의수 준	사후검증 (평균차)
경찰 입건 경력	집단간 변이성	3	27.05	9.01	5.59	$p < .01$	• 폭력상해- 살인과실치사 (1.76)*
	집단내 변이성	186	300.18	1.61			• 강도절도- 살인과실치사 (1.36)*
	전체 변이성	189	327.24				• 성폭력- 살인과실치사 (1.26)*
보호 형사 경력	집단간 변이성	3	41.32	13.77	2.83	$p < .05$	• 폭력상해- 살인과실치사 (2.19)*
	집단내 변이성	180	876.28	4.86			
	전체 변이성	183	917.60				

\*  $p < .05$

## 2) 범죄유형과 위험요인과의 관계

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라 개인·가족·또래 영역에서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소들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유형은 '폭력·상해범' '살인·과실치사범' '성폭력범' '강도·절도범'의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범죄유형에 따른 네 개 집단간에 나타나는 개인심리 영역, 부모양육영역, 가정환경영역, 또래영역 등에 있어서 범죄집단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별집단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는 Turkey 쌍별비교를 하였다.

### (1) 개인심리적 위험요인

범죄소년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심리적 특성들(공격성, 우울불안, 반사회적 인지, 문제행동 조기시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이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의 집단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변량분석방법으로 검증해 본 결과, '공격성' 요인에 있어서만 4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우울불안', '반사회적 인지', '문제행동 조기시작' 등에서는 평균치 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공격성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정 범죄집단 쌍을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정한 쌍이 나타나지 않았다(표15 참조).

<표14> 범죄유형에 따른 개인적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년의 범죄유형			
		폭력/상해범 (N=39)	살인/ 과실치사범 (N=12)	성폭력범 (N=31)	강도/절도범 (N=110)
공격성	M	15.64	13.36	14.77	13.70
	SD	3.79	2.91	4.25	4.13
우울불안	M	17.56	16.82	17.87	18.69
	SD	5.73	6.84	3.96	5.44
반사회적 인지	M	13.53	12.45	11.97	12.45
	SD	3.44	2.88	3.93	3.75
문제행동 조기시작	M	6.56	6.73	6.74	6.94
	SD	1.80	1.79	1.93	1.67

<표15> 범죄유형에 따른 개인적 위험요소들의 변량분석

종속변인	Source	DF	자승합(SS)	평균자승 합(MS)	F값	유의도	사후 검증
공격성	집단간 변이성	3	123.77	41.25	2.55	0.057	ns
	집단내 변이성	182	2944.78	16.18			
	전체 변이성	185	3068.55				
우울 불안	집단간 변이성	3	65.42	21.80	0.75	ns	-
	집단내 변이성	183	5293.43	28.92			
	전체 변이성	186	5358.86				
반사회적 인지	집단간 변이성	3	45.97	15.32	1.13	ns	-
	집단내 변이성	181	2453.13	13.55			
	전체 변이성	184	2499.11				
문제행동 조기시작	집단간 변이성	3	4.29	1.43	0.47	ns	-
	집단내 변이성	186	568.25	3.05			
	전체 변이성	189	572.55				

### (2) 부모양육 위험요인

범죄소년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부모의 자녀양육환경에 있어서 범죄에 취약한 특성들(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 가정불화, 가족관계문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가 표16에 제시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이는 이러한 양육환경적 요인들의 집단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변량분석방법으로 검증해 본 결과, '가족관계문제' 요인에 있어서만 4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 '가정불화' 등의 요인에서는 평균치 상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가족관계문제'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정 범죄집단 쌍을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강도절도범 집단과 폭력상해범집단이었다. 즉, 강도절도범의 가족관계문제의 평균값(18.65)과 폭력상해범의 평균값(16.10)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라는 것이다(표17 참조).

<표16> 범죄유형에 따른 부모양육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년의 범죄유형			
	폭력/상해범 (N=39)	살인/ 과실치사범 (N=12)	성폭력범 (N=31)	강도/절도범 (N=110)
학대적 양육태도	M 10.36 SD 3.70	M 9.45 SD 3.86	M 10.06 SD 3.26	M 10.69 SD 3.14
비일관적 양육태도	M 6.47 SD 2.20	M 6.27 SD 2.33	M 6.45 SD 2.42	M 6.93 SD 2.31
가정불화	M 6.86 SD 2.52	M 5.55 SD 2.02	M 7.45 SD 2.59	M 6.90 SD 2.24
가족관계 문제	M 16.10 SD 4.65	M 17.45 SD 6.89	M 18.93 SD 4.73	M 18.65 SD 5.23

\* 음영부분은 두 집단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임.

<표17> 범죄유형에 따른 부모양육 위험요소들의 변량분석

종속변인	Source	DF	자승합(SS)	평균자승합(MS)	F값	유의도	사후검증 (평균차)
학대적 양육태도	집단간 변이성	3	22.28	7.42	0.67	ns	-
	집단내 변이성	185	2042.48	11.04			
	전체 변이성	188	2064.77				
비일관적 양육태도	집단간 변이성	3	11.31	3.77	0.71	ns	-
	집단내 변이성	184	980.74	5.33			
	전체 변이성	187	992.05				
가정불화	집단간 변이성	3	29.65	9.88	1.80	ns	-
	집단내 변이성	182	1000.59	5.49			
	전체 변이성	185	1030.25				
가족관계 문제	집단간 변이성	3	213.46	71.15	2.69	p<.05	강도/절도- 폭력상해 (2.54)*
	집단내 변이성	184	4872.81	26.48			
	전체 변이성	187	5086.27				

\* p<.05

### (3) 가정환경 위험요인

범죄소년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범죄에 취약한 특성들(부모의 교육력, 부모의 경제력, 부모와 헤어질 때 나이, 부모의 적응문제, 형제의 비행문제)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가 표18에 제시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이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들의 집단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변량분석방법으로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표19 참조).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는지 여부와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가 표20과 표21에 제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친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은 51.3%이고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정은 48.7%에 달한다. 범죄유형별로 비교해 볼 때, 부모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살인·과실치사범(63.6%)이고, 그 다음은 폭력·상해범 집단(53.8%)이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유로서 가장 많은 비율은 차지하는 경우는 '부모이혼'(30.8%)이다. 다음으로는 '한쪽부모 사망'(25.0%)과 '양친부모 사망'(14.2%)이 많았다. 다시 말해, 부모사망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39.2%를 차지하고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한 결손가정이 36.6%를 차지하고 있다.

<표18> 범죄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년의 범죄유형			
		폭력/상해범 (N=39)	살인/ 과실치사범 (N=12)	성폭력범 (N=31)	강도/절도범 (N=110)
부모의 교육력	M	13.13	13.09	10.55	12.04
	SD	4.25	5.47	4.19	4.50
부모의 경제력	M	6.95	6.50	6.81	7.04
	SD	1.43	1.65	1.62	1.19
부모와 헤어질 때 나이	M	8.83	4.50	12.38	8.46
	SD	6.55	3.54	6.16	5.84
부모의 적응문제	M	8.74	6.64	8.84	8.51
	SD	4.51	2.34	3.18	3.42
형제의 비행문제	M	8.05	7.36	8.94	8.89
	SD	3.28	2.98	4.65	4.03

<표19> 범죄유형에 따른 가정환경 위험요소들의 변량분석

종속변인	Source	DF	자승합(SS)	평균자승합 (MS)	F값	유의도	사후 검증
부모의 교육력	집단간 변이성	3	127.01	42.33	2.13	ns	-
	집단내 변이성	186	3696.79	19.87			
	전체 변이성	189	3823.81				
부모의 경제력	집단간 변이성	3	3.47	1.15	0.64	ns	-
	집단내 변이성	182	331.08	1.81			
	전체 변이성	185	334.56				
부모와 헤어질때 나이	집단간 변이성	3	238.80	79.60	2.20	ns	-
	집단내 변이성	89	3218.89	36.16			
	전체 변이성	92	3457.69				
부모의 적응문제	집단간 변이성	3	43.90	14.63	1.14	ns	-
	집단내 변이성	184	2365.09	12.85			
	전체 변이성	187	2409.00				
형제의 비행문제	집단간 변이성	3	40.94	13.64	0.88	ns	-
	집단내 변이성	186	2898.99	15.58			
	전체 변이성	189	2939.94				

<표20> 범죄유형에 따른 양친부모동거 여부

변인		소년의 범죄유형				전체 빈도(%)
		폭력/상해범 빈도(%)	살인/ 과실치사범 빈도(%)	성폭력범 빈도(%)	강도/절도범 빈도(%)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 (46.2)	4 (36.4)	17 (54.8)	59 (53.6)	98 (51.3)
	부모 별거	21 (53.8)	7 (53.8)	14 (45.2)	51 (46.4)	93 (48.7)
	전체	39 (100)	11 (100)	31 (100)	110 (100)	191 (100)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임

<표21> 범죄유형에 따른 양친부모별거 사유

	소년의 범죄유형				전체 (N=120)
	폭력/상해범 (N=24)	살인/ 과실치사범 (N=5)	성폭력범 (N=20)	강도/절도범 (N=71)	
양친부모 사망	5 (20.8)	1 (20.0)	5 (25.0)	6 (8.5)	17 (14.2)
한쪽부모 사망	2 (8.3)	2 (40.0)	7 (35.0)	19 (26.8)	30 (25.0)
부모 별거	0 (0.0)	0 (0.0)	2 (10.0)	5 (7.04)	7 (5.8)
부모 이혼	10 (41.7)	0 (0.0)	1 (5.0)	26 (36.6)	37 (30.8)
기타	7 (29.2)	2 (40.0)	5 (25.0)	15 (21.1)	29 (24.2)

\* 음영부분은 각 집단별 최빈반응임

#### (4) 또래관련 위험요인

범죄소년들이 범죄유형에 따라 또래들과의 사회적 환경에서 범죄에 취약한 비행 문화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가 표22에 제시되었다.

범죄유형별로 보이는 이러한 비행적 또래문화의 집단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변량분석방법으로 검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23 참조).

<표22> 범죄유형에 따른 또래집단 위험요소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소년의 범죄유형			
	폭력/상해범 (N=39)	살인/ 과실치사범 (N=12)	성폭력범 (N=31)	강도/질도범 (N=110)
또래 비행 M	13.86	12.64	13.37	13.17
SD	4.85	4.43	4.65	4.49

<표23> 범죄유형에 따른 또래집단 위험요소들의 변량분석

종속변인	Source	DF	자승합(SS)	평균자승 합(MS)	F값	유의도	사후 검증
또래비행	집단간 변이성	3	18.03	6.01	0.29	ns	-
	집단내 변이성	178	3748.73	21.06			
	전체 변이성	181	3766.76				

### 3) 범죄경력과 위험요인과의 관계분석

소년들의 범죄경력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무엇이며 각 요인들이 가지는 상대적 예언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였다.

첫번째로, 네 개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청소년비행과 이론적 관련성이 높은 위험요인 6개를 예측변인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중다회귀모델에 넣어 범죄성 지표의 하나인 '경찰입건경력'을 예측하는 능력을 F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예측변인 별 회귀계수를 산출하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t검증을 적용하였다(표24 참조).

분석모델에는 범죄성 예측변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 4개(공격성, 불안·우울, 반사회적 인지, 문제행동 조기시작), 가정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서 자녀양육관련 요인 5개(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 양육태도, 가정불화, 가족관계문제, 부모의 허용적 태도), 가족환경관련 요인 3개(부모의 부적응문제, 가정 경제력, 가정결손), 그리고 또래관련 요인 1개(또래들의 비행문제) 등 총 13개 요인이 포함되었다. 개인 심리적 요인 4개는 개념적 동일성이 있고 내적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변인들은 합하여 하나의 통합적 요인으로 '개인심리적 요인'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요인 5개도 통합하여 '가정양육요인'으로 만들었다. 나머지 4개 변인들(부모의 부

적응문제, 가정경제력, 가정결손, 또래비행문제)은 각각을 독립된 요인으로 포함시켜 모두 6개의 예측요인을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유형별로 6개 변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범죄성의 두 번째 지표로서 보호처분·형사처분경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동시적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여 회귀모델에 대한 F검증과 각 회귀계수들에 대한 t 검증을 적용하였다(표25 참조).

경찰에 입건된 범죄경력을 예측함에 있어서 부모비동거가정, 개인심리적 요인, 가정양육요인, 부모적응문제, 부모경제력, 또래 비행문제 등 6가지 요인을 예측변수가 적용한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6가지 예측변수 중에서는 '부모 비동거가정', '개인심리적 요인', '또래 비행문제' 등 3개 변수만이 회귀계수가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력을 가졌다(표24 참조).

다음으로,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 경력을 예측함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6가지 요인을 예측변수로 포함한 회귀모델을 적용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6가지 예측변수 중에서 유일하게 '또래 비행문제' 변수만이 보호/형사처분 경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왔다(표25 참조).

<표24> 범죄소년들의 경찰입건 경력에 대한 위험요소의 회귀분석

	DF	자승합(SS)	평균자승합 (MS)	F값	유의도	R <sup>2</sup>
모 델	6	55.14	9.19	6.16	p<.0001	
오 차	147	219.35	1.49			
전 체	153	274.50				

	DF	회귀 계수(b)	표준 오차	t 값	유의도	표준회귀 계수(β)
질 편	1	1.07	0.85	1.25	ns	0
부모 비동거 가정	1	0.66	0.20	3.26	p<.01	0.25
개인심리적 요인	1	0.03	0.01	2.71	p<.01	0.23
가정양육 요인	1	-0.01	0.01	-1.51	ns	-0.13
부모 적응문제	1	0.03	0.03	1.21	ns	0.09
부모 경제력	1	0.01	0.07	0.16	ns	0.01
또래 비행문제	1	0.06	0.02	2.49	p<.05	0.20

\* 음영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임.